

# “연말까지 안팔면 세금폭탄”... 서학개미 美ETF 투자 ‘비상’

내년부터 매도액 10% 세금 부과 손절해도 세금 부과돼 거래 유의 연내 매도, 대체상품 대응 효율적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상장지수펀드(ETF) 세금 주의보가 내렸다. 미국 국제정(IRA)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개의 원자재, 환율, 에너지 인프라 관련 ETF 매도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면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IRA는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 개의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상 상품 매도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결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므로) 가급

〈PTP 과세 대상 ETF 리스트〉

순번	티커명	ETF명	투자 대상
1	DBC	Invesco DB Commodity Index Tracking Fund	원자재 전반
2	USO	United States Oil Fund LP	WTI 원유 선물
3	UUP	Invesco DB U.S. Dollar Index Bullish Fund	달러 강세
4	GSG	iShares S&P GSCI Commodity Indexed Trust	원자재 전반
5	DBA	Invesco DB Agriculture Fund	농산물
6	UCO	ProShares Ultra Bloomberg Crude Oil	WTI 2배
7	UVXY	ProShares Ultra VIX Short-Term Futures ETF	VIX 1.5배
8	UNG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LP	천연가스
9	SVXY	ProShares Short VIX Short-Term Futures ETF	VIX 단기(1개월)
10	BOIL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천연가스 2배

AUM 순.

/KB증권 리서치센터

적이면 12월 27일까지 매도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대상 PTP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마스터합자회사(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등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종목이다. 파트너십 형태로 상장돼 거래되는 종목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200여개 종목은 변동이 가능하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들도 포함돼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3개월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선 16위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BOIL·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와 31위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ProShares Ultra VIX Short-Term Futures ETF)’ 등

이 있다. 이 기간 BOIL은 4억달러, UVXY는 2억6000만달러가 거래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PTP는 사업 구조상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세금 우대를 받는 대신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분한다”며 “미국 내 세제 혜택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시 10% 원천징수’라는 다소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상품을 세금 부과 전 매도하고, 대체 상품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윤재홍 연구원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의 포지션을 이어가려면 미국 상장 관련 산업 ETF나 기타 국가에 상장된 원자재, 산업 ETF로 대응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구리(CPER U.S)의 경우 미국에 상장된 구리 산업 ETF나 한국 상장 구리 상장지수상품(ETP), 일본 상장 구리 ETP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 상장 원자재 E

TP는 기타 ETP로 분류돼 차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영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해외 상장 ETP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체자산 비중을 채권형 ETF로 옮기라는 조언도 나왔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높아진 무위험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며 “규제 대응으로 줄어든 대체자산 비중은 채권형 ETF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반강제적인 자금 이동이므로 기존 채권 ETF의 포지션 연장보단 ‘신규 포지션 구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미국 국채 금리 추가 상승을 전망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 ETF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금리 하락을 전망한다면 중장기 채권 ETF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재벌집 막내아들’ 흥행에 제작사 주가 강세

드라마 시청률 10% 넘으며 인기 래몽래인 주가 하루 만에 16.7%↑ 중에 콘텐츠 수출 등 기대감 반영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방영 첫 주만에 시청률 10%를 넘어서며 흥행 조짐을 보이자 제작사인 래몽래인의 주가도 최근 급등해 시가총액이 최근 500억원 이상 급증했다. K-콘텐츠 성공이 관련 종목 급등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콘텐츠 관련 종목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래몽래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1828억원으로 집계됐다. 래몽래인은 주말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최근 인기를 얻으면서 시총도 크게 치솟았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방영 첫 주부터 빠른 이야기 전개와 탄탄한 짜임새로 호평을 받으면서 시청률이 치솟았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유료가구 시청률이 1회 6.1%에서 시작해 3회만에 10.8%까지 오르며 매회 자체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래몽래인의 주가는 ‘재벌집 막내아들’ 방영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8일까지만 하더라도 1주당 2만600원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이 128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달만



‘재벌집 막내아들’ 캐릭터 포스터. /JTBC

에 시가총액이 539억원 가량 치솟았다. 특히 방영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8일에는 하루만에 주가가 16.74% 급등하면서 현재 2만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래몽래인은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을 맡았으며, 지적재산권(IP) 확보를 위해 공동투자도 진행했다. 회사의 총 투자금 352억원 중 절반인 176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단순 외주제작을 넘어 판권과 2차 판매 수

익 극대화도 예상된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외주제작 중심에서 IP를 보유하는 수익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며 “꾸준히 늘어나는 작품 수 높아지는 IP 보유 비율, 활발히 전개하는 2차 저작권 사업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래몽래인을 포함한 국내 콘텐츠 주식도 덩달아 들쭉이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이후 중국 최대 OTT 플랫폼에서 한국 영화 ‘강변호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가로 막혔던 국내 콘텐츠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다. 콘텐츠 관련한 종목을 추종하는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는 전날에만 50.95(2.64%) 오르면서 전체 KRX지수 중 두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정부 공식 석상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언급했다는 점, 시진핑 주석 언급 내용을 고려하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중국 콘텐츠 수출이 확대된다면 드라마 제작사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석 기자 ysl@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의 ‘토끼 놀이터’. /현대건설

## 현대건설 세계 첫 3D프린팅 놀이시설물 개발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에 설치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개발해 이달 말 준공하는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에 설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에 설치된 ‘토끼 놀이터(사진)’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토끼를 현대건설의 디자인 감각을 거쳐 형상화한 놀이시설물로, 생동감 있는 색상과 함께 다양한 형태를 통일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뛰어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3D 프린팅 조경 기술로 지난 2020년 7월 특허 출원 이래 국내 최초 공동주택 옥외용 3D 프린팅 벤치를 개발했다. 힐스테이트 및 디에

이치 10여개 단지에 설치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왔다.

비정형의 유려한 곡선이 특징인 현대건설의 3D프린팅 벤치는 작년 미국 디자인어워드 수상한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비정형 시공 프로세스 선진화’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차별화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의 3D 프린팅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구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 기술과 탁월한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킨 매력적인 조경 시설을 적극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코스닥협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시상식 개최

코스닥협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기업을 제14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투자자들의 신뢰와 코스닥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유망 코스닥기업을 발굴하는 대한민

국코스닥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고상이 정부시상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시상식을 주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백혜련 정부위원장, 국회 윤주경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금융감독

원 함용일 부원장,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주성엔지니어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핵심 전(前)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국내 장비 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한 글로벌 기업이다. /원관희 기자 wkh@

## ㈜한화 건설부문

### 제주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서 클래식 음악회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마련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에서 ‘포레나와 함께하는 클래식 in 제주’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연은 늦가을 제주도 정취에 어울리는 바로크 시대 고음악들로 구성됐다.

한국 최초의 바로크 목관 연주 단체인 서울바로크앙상블은 바로크오보이스 트 신용천을 필두로 바로크비순, 리코더 그리고 하프시코드의 고풍스러운 합주를 선보였다.

이들은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 헨델, 텔레만 등의 바로크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방문객들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다. /김대환 기자